

‘반값여행’에 땅끝해남 인기 고공행진

군, 1차 2200팀 모집...접수 시작 이틀만에 ‘완판’ 26일부터 2차 접수...청년층 70%까지 환급 혜택

남도의 끝자락에 자리한 해남군을 반값에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기에 완판되며 흥행을 예고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해남 반값여행’에 대한 1차 신청을 받은지 이틀만에 완판되며 마감됐다.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반값여행 접수를 시작했고, 1차 모집한 2200팀에 대해 28일까지 완료한 것이다. 이번 여행상품은 5일까지 열리는 해남

공룡대축제 기간과 맞물려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 해남을 찾는 여행객들의 여행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의 반값여행 상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남군민이 아닌 타지역 관광객이 해남에서 결제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반값여행 상품을 신청한 여행객에게 지

원되는 금액은 개인 최대 10만원, 팀의 경우 20만원까지이다. 개인의 경우 5만원 이상, 2인 이상 팀은 10만원 이상 소비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층에게는 혜택이 환급률이 70%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럴 경우 개인의 경우 최대 14만원, 팀은 최대 28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젊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값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해남군의 거주 여행객이며,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성을 고려해 해남군에서 가까운 강진군과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 주요 관광지나 축제장 등 최소 2곳 이상을 방문한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반값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매출 30여원을 초과하는 대형업소나 주유소, 유흥업소, 카센터 등 여행이나 관광과 관련이 없는 업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1차 접수에 이어 2·3차분 접수도 진행할 예정으로, 2차는 오는 26일, 3차는 6월 29일 각각 진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해남 반값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접수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마감할 수 있었다”며 “향후 회차 상품 운영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해남군 주요 관광 콘텐츠 중 하나인 명랑해상케이블카. 사진제공=해남군청



월출산을 배경으로 한 유채꽃밭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영암에서의 추억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영암 셋노란 유채꽃에 봄 관광객 ‘매료’

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꽃다발·포토카드 인기

영암군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유채꽃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영암읍 개신리와 군서면 도갑리 일원에서 ‘봄이 왔나 봄’ 프로그램을 운영,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머무르고 싶은 봄 관광지 구축을 위해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봄철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유채꽃을 직접 꺾어 꽃다발을 만들고 포토카드에 꽃을 더해 완성하는

‘나만의 유채 포토카드’ 등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개신리 유채꽃밭은 월출산을 배경으로 한 경관이 수려해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었고, 도갑제 수변데크길은 자연 속 힐링과 쉼표를 방문객들에게 전해줬다. 군은 이번 유채꽃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2년간 운영되는 ‘영암 방문의 해’와 연계한 계절별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영암=한정국 기자

기후위기 해법 ‘해조류 블루카본’서 찾는다

완도, 오늘 국제포럼 개최...국내외 전문가 참석

완도군이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외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중 4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완도블루카본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블루카본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학계 전문가

와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해조류 블루카본의 가치를 조명하고 탄소중립 실현, 탄소 흡수원 인증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데, 미국 에너지부 원장을 역임한 에블린 앤 왕 MIT 에너지·기후 부총장이 포럼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세인고 신스키 이사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참석

한다. 국내에서는 IPCC 방법론 저자인 김승도 한림대학교 교수, 권봉오 군산대학교 교수가 자리해 해조류 블루카본의 국제 인증 가능성을 진단하고, 주제 발표에는 국내 블루카본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기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이와 함께 신우철 완도군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충성·이기택·김승도·권봉오 교수와 해양수산부 강동양 수산자원정책과장, 한국수

산자원공단 최임호 전략사업본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산업 기후 위기 대응과 블루카본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군은 포럼을 통해 블루카본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에게는 탄소 배출권 등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학생들에게는 미래 해양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포럼은 완도가 선도해 온 해조류 블루카본 정책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등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도 설계하는 자리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 구현”

진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신창호)에서 ‘우리사이제로(420)’를 주제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념행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난타 공연 등 식전 공연

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권의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해 표창 등이 진행됐다. 또 체험과 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임마뉴엘복지회와 고향사랑기부제, 모아드림에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했다. 또 ‘장애인사회공헌 420챌린지’를 통해 모금한 42만원을 모아드림에 기탁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강진, 무더위쉼터 등 사물주소판 141개 설치

강진군은 최근 군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사물주소판 141개를 설치했다. 사물주소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주소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에 부여되는 주소이다. 강진군은 지난 2018년부터 버스정류장, 놀음쉼터, 공중전화, 우체통 등 29종의 사물에 사물주소 865건을 부여하고 462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군민의 주소사용 편의를 돕고 있다.



올해 정확한 위치안내를 위해 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 2종(무더위쉼터, 놀음쉼터)에 141개의 사물주소판을 추가로 설치했고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무인민원발급기, 어린이보호 CCTV 등의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주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교통·안전·복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gwangnam.co.kr

세척력이 우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비닐하우스·차광페인트 제거제



고객센터 062.654.7896
010.7564.4706

이 메 일 tank10323@naver.com
홈페이지 www.kcsoap.com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7-1
담양공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9

